



우측 QR코드를 휴대폰에서 QR코드 스캐너로 읽어주시면 주보를 소리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연중 제22주일·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 2019년 9월 1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15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 8지구 - 참회와 속죄의 성당



설립 2013년 6월 25일 전화 사무실 031-941-3159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111

**제1독서** 집회 3, 17-18. 20. 28-29

**화답송** 시편 68(67), 4와 5. 7. 6-7. 7. 10-11 (◎ 11. 1. 2 참조)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

○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

○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

**제2독서** 히브 12, 18-19. 22-24

**복음 환호송** 마태 11, 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복음** 루카 14, 1. 7-14

**영성체송** 시편 31(30), 20 참조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며 매일 저녁 9시에 주모경을 함께 바칩니다.



## 메리툼 meritum



이재원 율리오 신부  
백석동 부주임

라틴어 ‘메리툼meritum’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장점, 가치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 merit의 어원이 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상벌, 공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잘했다고 신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자격은 없다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공치사하며 신에게 무언가 해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답 받을 것을 약속하신 오늘 복음 말씀은 위로가 되지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꼭 보답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너무 하지 않나요?”

선한 지향을 품고 봉사하는 공동체에서 서운한 감정에 불멘소리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보답 받으려고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받는 사람에겐 서운하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끊임없는 은총 앞에선 얼추 보답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 한들, 사람 관계에선 그럴 수 없나 봅니다.

그러나 주면서도 받으려는 마음은 사실 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왜 내 사랑은 보답받지 못할까?’ ‘왜 나는 주기만하고 돌려받지는 못할까?’ 내 영혼을 아프게 찌르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베푸는 마음은 되레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내어주니 그 뒤에 일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베푼 것만 영혼에 새겨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하느님 사랑이 이웃사랑을 통해 드러내길 바라시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도 그렇게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니 메리툼meritum은 나와 같이 하느님을 향해 걷는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메리툼meritum, 공로를 계산하지 않고 그저 내어주는 것에 마음 두길 바라시는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



## I. 인사 발령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번호	이름	현 임지	새 임지
1	노연호	신곡2동 협력사목	오남 주임
2	장순관	안식년	호원동 협력사목
3	김호준	안식년	풍동 주임
4	정원식	풍동 주임	안식년
5	김연상	안식년	신곡2동 협력사목
6	이승룡	군중	연수

## II. 위원회 위원 임면

아래와 같이 위원을 임면합니다.

### 1. 인재양성위원회

**임** 윤종식 신부, 이종경 신부 **면** 최대한 신부, 정원식 신부

### 2. 직원인사위원회

**임** 김영욱 신부, 김동희 신부, 조병길 신부

▶ 이상 임명된 신부님들은 9월 3일(화)까지 새 임지에 부임하시기 바랍니다.

부  
고



### 김주용 암브로시오 신부

출생: 1970년 12월 4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서품: 1999년 7월 7일

선종: 2019년 8월 23일

장례: 2019년 8월 26일, 의정부 주교좌 성당

장지: 길음동 성당 울대리 묘역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그때 엄마는 지금의 나와 같았을까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큰애랑 모처럼 둘이서 영화 '라이언킹'을 봤다. 아이는 훗날 '라이언킹'을 처음 극장에서 본 영화로 기억할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본 영화 역시 라이온킹(애니메이션)이었다. 1994년 7월, 서울의 한 극장에서 엄마와 함께였다. 25년 사이, 애니메이션은 실사화 되고 초등학교생은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1994년의 그 날, 딸과 손을 잡고 극장에 들어가던 엄마의 표정이 어땠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며칠 전 내 표정과 별로 다르지 않았으리라. 극장에 왔다고 잔뜩 신난 아이와 다르게 나는 피곤한 상태였다. 영화가 시작하면 아이 몰래 눈 좀 붙여야지 생각했는데 엄마도 그랬으려나.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엄마는 주로 고단하게 지쳐있었다. 까무룩 잠이 든 엄마, 귀찮은 듯 나가서 놀라고 손짓하는 엄마, 입을 굳게 다문 엄마. 반면에 활기차고 다정한 엄마의 모습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소년기에 내 무의식이 다정한 엄마의 모습을 기억 속에서 감춰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으레 사춘기 청소년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세상이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느꼈고 당시에 부모님은 나의 가장 큰 세계라는 이유로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나는 엄마아빠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멋대로 설정한 뒤,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공격하고 원망하면서 한 시절을 통과해왔다. 그때 나의 기억이 왜곡되어 어린 시절의 엄마에 대해 쌀쌀맞은 모습만 남겨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종종, 젊은 시절의 엄마를 상상한다.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엄마가 아니라 실제 엄마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때 엄마도 지금의 나처럼 즐거웠을까. 아이 때문에 울었을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뽀뽀를 퍼붓다가 또 금세 화를 내고 말았을까. 할 수만 있다면, 어린 나를 키우던 젊은 엄마를 꼭 안아보고 싶다. 그러면 순식간에 많은 것들을 납득하게 될 것이다. 한때 나를 괴롭혔던 감정들도 눈 녹듯 사라질지도 모른다. 세상의 많은 자녀들이 커서 부모가 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부모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엄마아빠도 힘들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순 있다. 나 역시 그랬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이 하나둘 사라져버렸다. 그분들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고 한 순간도 딸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부모로서 보람에 겨운 날과 한없이 자책하는 날을 오가며 긴 시간을 견뎌왔을 것이다. 지금의 내가 그러하듯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경험하는 건 육아가 주는 축복이다. 어린 시절의 나와 부모, 지금의 나와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 나와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한때 문제라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많은 것들이 이제 별 문제가 아니게 된 것, 더 이상 누구를 탓하지 않게 된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

### 정신후 블라시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작가, 정발산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본당 청년과 결혼하여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2019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 피조물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9월 1일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2015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제정을 위한 서한’에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믿는 이들을 ‘생태적 회개’(「찬미받으소서」, 216-221항)로 초대하시면서 이 기도의 날이 기도, 묵상만이 아니라, 생태적 회개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호소하셨습니다.

### 공동의 집인 지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한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덕으로 많은 이들이 안락하고 편리한 일상생활 안에서 늘어난 수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주고받으며,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시장에서 넘치도록 쉽게 구매하며 소비합니다. 그러나 이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의 이면에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의 생명과 보금자리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미래에 피조물 전체의 파멸을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배출한 온실 가스는 지구의 생태 환경을 회복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훼손하였습니다. 극지방의 빙하와 빙산이 사라지거나 만년설이라고 여겼던 곳에 눈 대신 바위가 드러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생태 환경의 급변으로 ‘기후 난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약자가 출현하였습니다.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도시가 잠기고 있습니다. 대양에 떠 있는 몇몇 섬나라는 아예 국가임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국민들을 다른 나라

에 이주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호소합니다. 최근 우리는 미세 먼지의 농도를 보도하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 지구와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삶의 양식 전체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지구와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것”(「찬미받으소서」, 49항)을 호소하십니다. 가난한 이들과 파괴된 자연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디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십니

다. 그것은 우선 가난한 이들과 지구의 부르짖음을 먼저 경청하는 것이고, 그 부르짖음에 부응하는 하느님의 정의와 공정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기후 위기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세대의 탐욕과 무책임이 초래한 위기는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세대 간의 불의입니다. 또 무분별한 욕망으로 지구 자원을 차지하려는 무한 경쟁은 국내에서는 폭력적 갈등을 일으키고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위험을 배가하는 지역 간의 불의입니다.

### 평화를 위한 기후 행동에 동참합시다

UN(국제 연합)은 올해 9월 21일 국제 평화의 날 주제를 ‘평화를 위한 기후 행동’으로 정하였습니다. 9월 23일에는 ‘기후 변화 특별 정상 회의’가 개최되고,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는 전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 위기 대규모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월 21일 시민 사회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정부와 탄소 다배출 기업 등 책임자들에게 기후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지배 체제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석유 산업, 석탄 화력 산업, 핵 산업, 전력 산업 등 지구 생명의 지속을 방해하는 지배 체제에 저항하고 이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

는 다양한 행동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제정을 위한 서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인류가 겪고 있는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종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서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것을 자행할 수 있지만, 또한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정신적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여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시 선을 선택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205항).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우리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생태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공동의 집’에서 살게 하신 하느님의 뜻을 충실하게 헤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 우 일 주교

## 교회가 암흑기를 맞이하다 프랑크 왕국의 분열

강한수 가톨릭 신부 | 민락동 성당 주임, 건축신학연구소

지난 회에 롬바르디아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성당 건축은 교회와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회에는 그와 관련된 9~10세기의 교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신학자 알쿠이누스의 도움으로 많은 법령집을 만들고, 지역 교회에 주교들을 임명하였으며, 로마 전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814년 사망한 그는 아헨 왕궁 성당에 묻혔고, 그의 아들 루이 경건왕(814~840년 재위)이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루이는 아버지의 개혁을 이어받아 “수도회법”(817년)과 “성직자법”(819년)을 제정하고, 교회의 영성과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궁정 학술원에서는 성경과 교부들의 작품을 연구하였고, 필사자들을 양성하여 많은 훌륭한 필사본들이 출간되었습니다.

신학의 발달은 신학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찬례 논쟁’입니다. 이는 코르비 수도원의 아바스 라드베르투스(Radbertus, +859)와 수사 라트람누스(Rathramnus, +868)가 벌인 논쟁으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찬례에서 축성된 ‘성체’에 대한 사실주의적 입장과 상징주의적 입장의 대결이었습니다. 라드베르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존재 방식과 성사적 존재 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매일 반복됩니다. 반면에 라트람누스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피의 상징이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하는 것이 됩니다. 이 양극

단의 입장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훗날 교회가 성체 안의 그리스도의 현존에 관한 ‘실체변화’의 가르침에 도달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동방에서는 ‘성화상 논쟁’이 100년 이상 계속되고 있었습니다(726~843년).

루이 이후 프랑크 왕국은 베르됭(Verdun) 조약(843년)에 의해 세 나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



프랑크 왕국의 분열

원이 되었고 이후 서유럽은 통일된 국가를 갖지 못했습니다. 서유럽이 분열되자 북쪽에서는 노르만족(바이킹)이 내려와 프랑스 북부 연안을 점령하였습니다. 이 지역을 지금도 ‘노르망디’라고 부릅니다. 또한 동쪽에서는 헝가리족이 독일 동부를 침략하였고, 남쪽에서는 사라센족이 쳐들어와 이탈리아 남부를 점령하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교회도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보편적인 황제권의 보호를 잃은 교황권은 로마 귀족들의 이해관계 속으로 빠져들었고, 지역 교회들도 지방 귀족들의 권력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학자들은 ‘카롤링거 왕조’ 이후부터 ‘그레고리오 개혁’ 이전까지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주교를 선출하던 전통은 사라지고, 봉건제도 안에서 왕이나 영주들이 마음에는 사람에게 십자가와 반지를 주며 주교직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런 성직 서임은 자질 없는 주교들을 양산하였고, 성직 매매도 일어났으며, 사제의 독신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문제들은 클뤼니 수도원(서프랑크)의 설립과 오토 대제(동프랑크)의 등판을 재촉하였습니다. 🌐



## 교구장 동 정

9월	3(화)	10:30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4(수)	11시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14시	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5(목)	13:30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제79회 전국회의
	7(토)	10:30	추석맞이 이산가족 위령미사&통일기원묵주기도 - 참회와 속죄의 성당



## 교구 소식

### 9월 불나팔미사 (교구정의평화위원회 월례미사) 안내

일시 9/4(수) 20시

장소 토평동성당

### 성소후원회 미사

1,2지구 일시 9/4(수) 10시 / 장소: 구리 성당    3,4지구 일시 9/5(목) 10시 / 장소: 호원동 성당

### 교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9/6(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9/9(월) 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동학

문의 031-850-1507(주말, 공휴일 휴무)

### 교구청 혼인교리(가정사목부 031-850-1448)

일시 9/19(목) 19:30~22:30

장소 교구청 지하 대회의실 /회비 2만 원(커플 당)

### 의정부교구청 통합사목국 직원 모집

인원 1명

업무 사목 연구 및 사무 업무

자격 가톨릭신학 전공자

접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4층 통합사목국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 추천서, 재학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1부

마감 9/20

문의 031-850-1486 통합사목국

### 제18차 의정부 가톨릭약혼자주말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http://cafe.naver.com/ujbee>

대상 예비 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일시 10/18(금) 19시~20(주일) 17시

장소 위로의 성모 수녀원(성북동)

문의 가정사목부 031-850-1448

### 2019년 추석맞이 이산가족 위령 미사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일시 9/7(토) 10:30 통일기원 묵주기도, 11시 미사

주례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 /공동집전 의정부교구 사제단

주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31-941-6235~6    대상 민족화해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신자

### 제46기 아버지학교

대상 모든 아버지(연령, 종교 불문)

기간 9/29(주일)~10/27(주일), 매주 14시~19시

장소 호원동 성당 /인원 50명

회비 10만 원 /문의 010-2416-2189

### 청소년 오케스트라 피델리스 단원 모집(010-3642-3574)

일시 매주(주일) 13:30

모집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타악기, 금관악기

장소 피델리스 임시 연습실(일산 가좌동 성당)

준비 악기, 오디션곡 악보(오디션곡은 자유곡)



## 미사 · 피정 ▶▶

### 3.4지구 성령기도회 월피정

일시: 9/2(월) 10시~16:30(미사포함)  
 강사: 김정택 비오 신부 /말씀과 치유  
 (미국 오스틴교구 주교좌성당 주임)  
 장소: 주교좌성당 대성전 010-3790-0496

###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과 함께하는 이천송이 묵주기도

일시: 9/17(화) 09:00~16:30  
 장소: 후곡성당 대성당  
 ※ 점심(김밥) 제공합니다.

### 광탄본당 설립 10주년 감사 미사 초대

일시: 9/8(주일) 10:30 미사  
 많은 은인들의 도움으로 설립된 광탄본당 공동체가 1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은인들을 기억하며 묵주기도 100만단(2016년 7월) 봉헌했으며 매미사 전 감사기도를 바칩니다. 이제 도움주신 분들을 초대하오니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감사 미사 후 식사와 작은 바자회가 있습니다.)

### 이한택주교님과 함께하는 첫토신심피정

일시와장소: 9/7(토), 파티마평화의 성당 031-952-6324, 10시 기도, 11시, 13시 강의, 고해성사, 14시미사(점심제공)

### 교구 성령봉사회 철야기도회(미사와 함께)

일시: 매주(금) 21시~01:20시 마두동 성당(9/6)  
 주제: 찬양과 치유 기도회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 미사와 함께하는 묵주기도 100단

일시: 9/4(수) 13시~16:30  
 미사: 김영철 베드로 신부(교구 담당사제)  
 장소: 능곡 성당  
 성인 호칭기도와 함께하는 기도회  
 일시: 9/11(수) 14시~15:30 장소: 동일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 8지구 영성피정/금촌성당(파견미사)

일시: 9/3(화) 12:30~16:30  
 문의: 010-3495-8522  
 강의: 이영숙 베드로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 Youth Lectio Divina

일시: 9/21 15시~9/22 13시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본원  
 대상: 고1 이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  
 피정비: 성인 2만 원 /학생 1만 5천 원  
 문의: 010-8353-2323

### 첫 토요일 신심 미사

일시: 9/7(토) 09:30~12시, 10시 미사  
 장소: 호평동 성당(남양주시 호평동 556번지)  
 문의: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의정부지부 010-7131-2033

###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평정

내용: 효소단식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 노폐물, 체지방을 없애고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해 성체신심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일시: 9/20(금)~23(월), 10/3(목)~6(일), 11/8(금)~11(월) /피정지도: 토마스 신부(본원)  
 장소: 성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피정비: 36만 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신 글라라)

### 슬픔 속 희망찾기 자살유가족 프로그램

대상: 자살로 소중한 이를 잃은 분들  
 1박2일 피정  
 일시: 9/27(금)~28(토) 14시  
 장소: 가회동 노틀담 교육원  
 참가비: 무료(20명 모집, 9/20까지 신청)

### 월례 미사

일시: 매월 세번째(토) 10:30 (9/21)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1층 소성당  
 문의: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02-727-2496

###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활동 중의 관상 /김민 신부  
 일시/장소: 9/6(금) 10시~13시 /예수회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성모신심미사

일시: 9/7(토) 11시, 예수성심의 어머니성당 전세버스대절-서울역 1,4호선 14번출구(9시 출발), 일산동구청주차장앞(9:30 출발), 인천주안역북광장(9시 출발), 동암역 농협앞(9:05 출발), 9/4 까지 예약필수  
 문의: 02-379-8081, 010-4550-6955

### 예수회 가을 성소피정(9/20-22)

일시: 9/20(금)~22(일)  
 장소: 예수회센터 /vocation.jesuits.kr  
 문의: 010-3324-0731

### 예수고난회 명상의집 10월피정

월피정: 9/22(일), 10/26(토) 10:20~16:20  
 자연.침: 10/2(수)~3(목)  
 위령9일기도: 11/2(토)~10(일) 오전11시  
 문의: 02-990-1004

### 행주 성당 성모 신심 미사(전대사)

일시: 9/7(토) 11시, (묵주기도)  
 매월 첫(토) 11시에 있습니다.

###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일시: 9/6(금) 18시~9/8(주일) 15시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문의: 010-4400-1344, (043)213-9103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피정(올레, 미사, 기도, 강의)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일시: 9/18~20, 9/22~25, 9/27~29, 10/3~6, 10/9~11, 10/14~17 문의: 064-796-9181

###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일반: 9/7~9, 9/16~18, 10/17~19  
 제주전체성지순례(추자도포함): 9/21~24, 9/30~10/3, 10/6~9  
 접수: 02-773-1463 /064-756-6009



## 교육 · 모집 ▶▶

### 2019 의정부교구장배 가족오리엔티어링 대회

대상: 전신자(가족, 본당 단체, 주일학교, 기관 등)  
 일시: 9/22(주일)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용: 오리엔티어링 경기, 체험부스, 경품추첨 등  
 문의: 031-840-0742 ※ 홈페이지 참조

### 2020학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보건복지교육계열 특성화 4년제 대학 호남지역 사립대 취업률 1위  
 모집학과 및 인원: 간호학과86명, 사회복지학과 16명, 유아교육과 14명  
 원서접수: 9/6(금)~9/10(화)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투이  
 입학상담: 061-280-5108, 5150

### 복음화학교 개강 37기 (2019년 하반기)

마두동 성당 9/23(월) 20시 <오후반>  
 호평동 성당 9/24(화) 11시 <오전반>  
 마석 성당 9/25(수) 11시 <오전반>  
 문의: 010-5535-5791 오경은 루치아

### 2020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

접수기간: 9/6(금)~9/10(화)  
 수시모집: 조형예술대학, 간호대학  
 전형: 학생부교과(면접고사), 실기(실기고사)  
 입학문의: 032-830-7012(송도국제캠퍼스 입학홍보과)

**청년성서모임 센터그룹공부 그룹원/봉사자 모집**

대상: 만20세 이상 청년 신자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장소: 화정동성당 512호(말씀의방)  
 기간: 9/1(일)~9/14(일)  
 신청방법: club.cyworld.com/godloveujb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ujbible@gmail.com으로 이메일 접수  
 문의: 031-979-7065(말씀의방)

**시스띠나합창단 단원모집**

지휘: 이호중 라파엘 교수  
 연습: 매주(목) 19:30  
 문의: 010-8886-6202

**가정선교회 <나먼저 가족모두 변화살기 교육>**

일시: 9/10~11/12 매주(화) 14시~16:30 <10주>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14호  
 강사 :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희연 전문  
 강사, 김미희 전문강사  
 회비: 5만 원  
 문의: 010-2367-2297, 02-777-1773

**가톨릭신문사 직원모집**

분야: 기자(취재, 편집) /구분: 신입,경력(계약직)  
 접수: 9/4(수)까지 /문의:02-778-7679  
 홈페이지 www.catholictimes.org 참조

**꽃동네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총복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원서접수: 9/6(금)~9/10(화)  
 문의: 043)270-0100

**2020학년도 전기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접수기간: 11/5(화)~11/14(목)  
 모집전공: 현대회화, 바이오메디컬아트, 3D용  
 합조형, 이론, 스테인드글라스, 교회문화재, 헬스  
 스케어환경디자인, 스마트콘텐츠, 간호학  
 입학문의: 032-830-7015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봉사자  
 장소: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문의: 031-820-7003

**예수회 특별강좌<가톨릭 신앙과 영성>2019'가을'강좌**

일시: 매월 둘째,넷째(화) 10시~11:55, 총7회  
 장소: 예수회센터 3층 성당, 9/10(화) 개강  
 강사: 예수회 사제(심종혁, 조인영, 신원식)  
 및 정인숙 박사, 김미정 수녀, 김혜숙 선교  
 사, 주원준 박사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  
 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신청: 02-3276-7733, https://center.jesuit.kr

**살레시오교육영성센터 http://www.salesioedu.org/**

전문상담: 개인, 부부, 청소년, 집단, 학습,  
 아동놀이치료 /강좌: 심리, 대화법, 초등맘  
 영어동화, 가정독서지도, 마음돌봄영성  
 학부모 원데이클래스: 부모자녀성격공감, 인  
 문, 진로독서,예방교육 외  
 초.중.고 독서지도: 놀이, 인성, 사회, 인문통  
 합독서 /문의: 02-844-0388(신풍역 7호  
 선, 신길동 살레시오수녀원)

**신학과사상학회 제7차 국제학술심포지엄**

주제: 무로부터의 창조 (Creatio ex nihilo)  
 - 물리학적, 신학적, 철학적 새 전망 -  
 일시: 9/27(금) 13:30~18시  
 9/28(토) 9시~18시  
 장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진리관 대강의실  
 문의: 02-740-9731 http://stt.catholic.ac.kr  
 주최: 신학과사상학회, 한국가톨릭철학회  
 ※ 동시통역으로 진행

 **안내 · 기탁 ▶▶**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10/7 유럽 수도원 순례 12일 399만 원  
 10/12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 원  
 10/27 발칸반도 12일 365만 원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11/22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69만 원

**가톨릭여행사 02-319-2533**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10/21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11/4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12일 625만 원  
 11/5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5만 원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10/4, 11/4 이스라엘,요르단10일 289만 원  
 10/7, 11/7 이태리일주9일 279만 원  
 10/6 산티아고 도보순례14일 389만 원  
 11/1 홍콩 마카오4일 129만 원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는가족,효도,단체  
 관광및성지안내차량,호텔,팬션,골프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9/17~19, 10/15~17, 11/5~7  
 장소: 제주성지7곳 (성지해설)  
 문의: 064-805-9689  
 해외순례: 2020년 3/2 그리스터키 12일

**한국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9/16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발현성지 5개국 13일  
 10/8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4일 390만 원  
 10/22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터키,그리스) 12일  
 11/27 멕시코, 페루, 쿠바 13일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9월 골롬반평신도선교사(해외선교) 관심자모임**

일시: 9/8(일) 14~17시  
 대상: 만23~만38세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1번출구)  
 문의: 02-929-4841, www.columban.or.kr

**27회 글로벌 영어연수 참가자 모집**

출국: 9/7(토) 4주 이상 선택  
 국가: 필리핀, 캐나다  
 대상: 성인 및 대학생  
 특징: 학비일부지원사업  
 문의: 광주청소년수련원, 070-4365-7297

**56차 이태리 순례**

일시: 11/8~11/20 (12박13일), 440만 원  
 문의: 010-9454-5648,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예수회	9/7(토) 15:30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010-3324-0731
	한국외방선교수녀회	9/7(토)~8(주일) 원하는시간	명동가톨릭회관 은하수갤러리	010-3015-1773



## 가장 큰 계명(1)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태 22,37)

왕태연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성사(聖事)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된 신자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과 인간이 하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고 있고,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요한 4,16~17)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첫 세 개의 계명은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충실하고 성실한 사랑의 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어서 자칫 사랑의 자유가 배제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진실한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라는 요청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 때

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보다 하느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093항)

그러나 사랑의 고귀함을 훼손시키고, 사랑의 관계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망각과 배신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큰 범죄 행위가 아니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작은 일들 또한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호기심이나 재미 삼아서라도 점(占)을 보거나, 손금 또는 사주에 대한 해석에 매달리는 것은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당연히 하느님 한 분께만 드려야 하는, 사랑의 경외심이 포함된 영예와 존경을 거스르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16항)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포기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하는, 힘겹고 고생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지켜내고 그 사랑 안에 끊임없이 머무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요한 15,10) ☪